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명량대첩 인파 속 농지은행 알렸다

[김준혁]

농지매입·이양은퇴직불 등 집중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린 명량대첩축제 현장을 찾아 농지은행사업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린 명량대첩축제 현장을 찾아 농지은행사업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상속받았거나 고령·은퇴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농지이며,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이거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는 고령농업인 가운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라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은퇴농 등이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이면서 총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농지가 대상이다.

진도지사장은 "금번 명량대첩 축제 홍보를 더불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나 진도지사,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